

충남지역 생산품습의 서술체계

주 강 현 (社 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1. 물질민속연구 현황과 과제 : 연구사적 소외

19세기말 20세기 초반, 문명지상주의를 부르짖은 개화파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東道西器였다. 그리하여 서구과학기술편향을 드러냈으며, 우리 자신의 器를 논함은 무모한 후진성의 고백 정도로 치부되었다. 근대화는 오로지 서구화와 일치된 개념으로 결론지워졌다. ‘기’는 없으나 ‘도’는 우리 것이 낫다는 주의주장은 혹시나 東道東器나 西道東器는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싹부터 잘라냈다. 그리하여 동도동기는 차마 꿈꿀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으며, 그 결과는 대단히 비참했다. 동도서기는 커녕 西道西器의 본격적인 만개를 보게된 것이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은 오로지 ‘수입품’이면 충분하였다.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과학만능 사고방식은 서구시민사회 근대주의의 소산인 과학이란 페러다임을 그대로 중세사회적 가치관이 미처 깨어나지 못한 나라에 이식시키는 ‘과학적 강제’에 불과했다. 과학과 기술은 오로지 ‘수입품’이면 충분했기에 지나간 시절의 과학과 기술은 ‘홀려간 옛노래’에 불과했다. 물질민속에 담겨진 충만한 세계관은 무시당하고 연구사적으로도 논외의 취급을 받아 서자 노릇으로 전락하였다.

이같은 ‘정신편향’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일제식민지와 분단을 거쳐면서 가속화되었다. 만일 우리가 21세기의 물질문화에 대한 민족의 내재적 이해방식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이같은 과정에 대한 엄정한 자기비판 없이는 문제의 처방이 묘연해질 것이다.

한국사의 내재적 진보를 부정하고, 과학기술발전의 선진성을 부정함으로써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피하려고 했던 일제의 의도는 민속학분야에서도 ‘민간신앙연구’에 집중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네들로서는 식민지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피식민지의 정신문화를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네들의 정책적 연구방향을 해방 이후에 까지 고스란히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한국민속학연구가 다분히 ‘전설연구’ 식으로 이어졌고, 국문학도에 의한 구비문학연구가 주종을 이루게 되면서 더이상의 물질민속연구는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사 영역에서는 불행하게도 ‘쓰여지지 아니한 역사’는 역사책에서 빼놓는 일제시대 이래의

잘못된 실증사학의 관습에 물들어 민속학을 끝내 포기하고 마는 우를 범하였다.³⁰⁾

본인의 작업을 반드시 민속학이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을지라도 일제시대 한국민속학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였던 일군의 학자들 가운데 손을 꼽을 수 있는 최남선, 이능화의 연보에서 물질민속에 관한 업적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다만 이능화의 『조선여속고』(1927)에서 여속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여성노동을 다루는 정도다.³¹⁾ 최남선이 『조선상식문답』에서 백과사전식으로 박물지적 지식을 종합화하는 차원에서 물질문화를 다룬 경우는 있어도 본격적인 물질민속연구라 하기는 어렵다. 일제시대 대표적인 민속학자인 손진태와 송석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손진태가 『온돌고』 등에서 문헌상으로나마 연구를 시도한 것이라거나 송석하가 수많은 사진 작업을 통하여 물질문화에 대한 기록을 수행하였고 그 자신 박물관 창설에 관여하므로써 유물수집에 관심을 기울인 것 등이 주목될 뿐이다.³²⁾

우리는 지난 수세기동안 밥걱정을 해오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용케 밥없이 사는 사람인양 ‘정신편향’의 연구만을 거듭해왔다. 밥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한데, 그 양자를 아우르면서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온전한 통일된 사고틀로 동도동기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와있다. 물질과 정신을 애써 구분하고, 동도서기를 부르짖던 19세기말의 세기말적 주장은 이미 그릇된 패러다임이 되고 말았다. 지난 20세기 물질민속연구사의 내재적 비판을 시도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세기말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시론’이란 딱지를 붙이고 있는 한국물질민속연구사의 허허로운 공백에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³³⁾

2. 연구사 검토 및 서술체계 분석

30) 이러한 점에서 남창 손진태는 지극히 남다르다고 여겨지며, 근대적 의미에서의 한국민속학의 개조로 꼽을만하다. 그러나 그의 연구시각 역시 일본의 역사민속학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감이 있다. 다만 그가 훗날 신민족주의사관을 주창하면서 민중생활사의 복원을 의도한 점이 주목된다.

31) 혼인과 복식, 산육과 잡속, 노력동작, 여능행사 및 놀이 등 총 26장에 걸쳐서 여속을 다루면서 22장에서는 여성노동을 정리하였다.

32) 이능화는 종교사의 입장에서 주로 신아분야에 손을 대었고, 최남선은 상고사 연구의 학적 입장에서 민속에 손을 대었다고 볼수 있다. 손진태는 설화와 민족족문화연구 일반, 송석하는 민속놀이 분야에서 성과를 남겼다. 같은 시기인 1920년대 말로부터 30년대에 걸쳐 신앙부분에서 활동한 일본인 아끼바나 무라야마 등의 업적도 대개 신앙 등에 치우친다. 그밖의 연구자인 고정옥, 김소운, 임석재, 정인섭, 김재철, 정노식, 이혜구 등의 어느 누구의 연구에서도 생산 및 물질민속에 대한 이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33) 물질민속에 관한 동도동기적 입장은 세계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입장에서 별도로 논술할 기회를 갖기로 한다.

‘물질문화’는 총체적인 개념이다.³⁴⁾ 민속학에서는 범주를 세밀화시켜 물질민속이란 용례를 쓰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속신앙·민속놀이 식으로 민속물질이란 용례도 쓴다. 물질문화연구가 물질에 직접 관련된다고 하여 의례 따위로 연계된 정신적 영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농경의례, 어업의례 등의 생업과 관련된 의례는 그 목적하는 바가 의식주를 생산하기 위한 것임에도 정신적 영역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의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산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매개되어있다는 점에서 생산풍습의 외연확장이란 측면에서도 생산풍습연구사 범주로 넣어야 마땅하다.³⁵⁾

생산풍습 연구사의 범주를 결정짓는 데서 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생산력·생산관계·생산양식 등의 기초적인 범주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하면서 민속학에 매개되는가. 당연한 귀결이지만 경제학, 즉 사회경제사가 민속학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속학이 경제학을 대신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속학에서 다루는 생산문제의 기초적 범주들은 대략 생산도구와 생산의례, 의·식·주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³⁶⁾ 노동수단으로서의 생산도구는 민중의 일상생활과 기술의 발달을 웅변해주고 있다. 자그마한 도구 하나하나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민중생활의 구체적 현장으로 안내할 것이다. 의식주 물질생활 범주 역시 생산력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민속주체의 구체적 생활단위에서 의식주는 삶의 재생산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기초이기 때문이다.³⁷⁾

한국민속학사 서술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취약한 분야가 바로 생산풍습분야일 것이다. 취약하다는 표현보다는 기실 부정확하며, 지독한 연구사적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더욱 정당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산풍습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 저층이 대단히 낮다.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신문화에 기우는 연구풍토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반면에 해방 이후 북한민속학계는 대대적으로 생산풍습연구를 주도하게 된다. 즉 한국민속학에서 생산풍습연구사는 남북이 두렷이 구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북한의 민속학은 일찌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이란 목적지향적 입장에서 생산풍습에 절대적인 우위를 두었다. 반면에 남한의 민속학은 정신문화연구에 편중되어있는 현실이다. 물론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의 민속학연구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 및 동어반복적인 수준에 머물며, 반면에 남한의 민속학연구는 발표논문 편수에서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준다. 그렇다고하여 남한 민속학연구에서 생산풍습연구의 외연이 확충되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남북의 민속학이 상호 연관성이 없이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걸어

34) 1970년대 이래의 물질민속연구사에 대한 일정한 검토가 국사편찬위 한국사론(29집, 1999)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약술하고 있다.

35) 본고는 물질민속 중에서도 생산풍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6) 주강현, 「역사와 민속, 변혁의 문제-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 일고」(국립민속박물관 심포지움, 「민속학에서 민의 개념과 실체」 자료집, 34-35쪽), 1989.9

37) 그러나 본 연구사 검토에서는 의식주연구분야는 논외로 한다. 별도의 항목에서 세목별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농업과 어업, 수공업이란 직능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항목 속에서 노동도구, 의례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서술코자 한다.

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생산풍습에 있어서 학문의 영향관계가 설정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논쟁이 싹트던 자본주의맹아에 관한 입장, 경영영부농 등 사회구성체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이 남북학계에서 공히 논란이 되었다. 농기구 연구등에서 북한민속학의 많은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생산의례분야는 북쪽의 연구가 거의 없으며, 이점은 남한쪽의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연구사서술과 다르게 생산풍습연구사 분야에서는 남북한민속학의 발전경로를 상호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을 일정하게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³⁸⁾

생산풍습연구의 큰범주는 농업, 어업, 수공업으로 삼분된다. 가장 기본적인 생산풍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농업이다. 연구자료 산출도 가장 많고 생산력을 규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치였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어업이나 수공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사가 빈약하다. 그러나 생산풍습연구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서술이 가능하다. 산간풍습으로서의 수렵풍습, 혹은 농업에 포함될지라고 중요한 대목인 원예, 목축, 양어 등의 항목은 논문 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사 검토에서 다음을 주목한다.

연구논문으로 작성된 것들 이외에 민속현장보고서가 중요하다. 그러나 향토사집필에서 생산풍습분야가 서술되기 시작한 역사가 오래지 않으므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축적된 연구사가 나올 것이다. 영역구분이 애매한 것들이 다수 존재하다. 가령, 식생활분야라고 할 때 부엌에서 쓰는 생활용구라거나 식기 등도 용구라는 차원에서 연구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의생활분야에서 물레, 베틀 등에 관한 연구도 용구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식생활이나 의생활에서도 마땅히 다루어야 할 항목들이다.

1970년대 이래의 연구사를 검토해본다. 물질문화 및 생산풍습에 관한 민속학계의 무관심, 더 나아가서 정신문화에 대한 지나친 편중의 결과, 생산풍습연구사를 정리하고 이의 방법론적 입장을 천명한 연구성과 역시 수편에 지나지 않는다.

‘민속학의 방향’이란 주제로 1971년에 열린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민속학 학술회의를 살펴봐도 어디 한군데 생산풍습에 대한 고려가 없다³⁹⁾. 1978년에 첫선을 보인 한국민속학사 서술에서도 국문학의 외연확장과도 같은 인상을 줄 뿐이다.⁴⁰⁾ 그나마 안동대학교에서 주관한 1979년의 ‘한국민속학의 개념과 과제’ 심포지움, 1983년의 ‘한국민속학의 연구방법’ 심포지움 결과물을 기초로 엮은 책에서 ‘민속물질 연구방법’이 짧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김광언은 ‘민속물질’이라고 학술회의에서 사전에 명명된 명칭에 대하여 용어를 풀이하고, 민속물질 연구의 어제와 오늘, 민속물질의 내용, 민속물질의 연구방법 등을 약술하였다.⁴¹⁾ 같은 책에서 김택규가 지적하였듯이, ‘한국민속학의 연

38) 북한의 민속학사 서술에 관해서는 다음을 주로 참조.

주강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사, 1991

39) 원광대학교민속학연구소, 『민속학의 방향』 회의록, 1971

김태곤편, 『한국민속학원론』, 시인사, 1984

40) 인권환, 『한국민속학사』, 열화당, 1984

구범위는 구비문학, 무속, 연희 등이 대중처럼 되어왔다. 그러나 민속학이 담당해야 할 생활사, 생활사실, 사회관습, 정신문화, 물질문화 등의 여러분야 가운데서 이 분야들은 한부분에 불과한 것이다'는 표현처럼 물질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얇은 현실이다.

최인학이 국사편찬위원회 발간 『한국사회보』 등에 발표한 글을 묶은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까지의 학계연구동향에 의하면, 생산풍습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⁴²⁾ 구비문학과 민속학의 변별성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혼미한 양상이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연구사 정리 자체에서도 생산풍습에 대한 배려가 없다.

1981년에 초판본이 나온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한국민속대관』은 실상 1970년대까지의 연구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생업기술편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 농경(농사, 일꾼, 두레와 품앗이, 거름, 농기구, 농사력, 기우제), 수산(채취, 고기잡이, 오로, 양식업, 배, 어렴과 염장법), 사냥(사냥법, 사냥감분배, 사냥의례), 사냥구, 축산, 운반 등을 망라하였다.⁴³⁾ 이같은 편제로 생업기술을 민속대관에 편입시킨 연구관점이 주목된다. 물론 대관에서 연구사 자체를 검토하지는 않았다.

연구사 정리에서는 한상복에 의한 민속종합조사의 회고를 꼽을 수 있다. 인류학회가 주동이 된 전국민속종합조사의 회고를 통하여 전망을 내오고 있다.⁴⁴⁾

1980년대에 접어들면 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1960년대 말, 1970년대 전반기에 대학을 다닌 소장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진보적인 학풍에 불을 당기기 시작하며 이는 인문학분야 전반에 걸친 일반적 양상으로 된다. 1970년대에 김용섭 등의 지극히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사회경제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가령 1987년에 조선후기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를 다루는 연구사가 출현하는 바,이 가운데 이영학·이영호·이세영·오미일 등에 의하여 조선후기 경제사연구의 방향이 약속된다. 농업생산력,토지소유관계,토지소유형태와 농영경영, 식품유통연구현황 등이 중간 정리되었다. 역사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이지만 민속학분야에서도 참조할 내용이 많다.⁴⁵⁾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결같이 민속적 관행에 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민속학에서 제한적인 참조밖에 되지 못한다. 가령 농기구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역사학분야에서 제출되었지만, 농기구의 현장 관행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학분야에서 생산풍습을 연구하는 이들은 역사학의 동향을 주시하였다.

1989년에 「북한의 민속학 - 재래 농법과 농기구」를 편찬한 바 있는 주장현은 1991년에 『북한민속학사』를 선보인다. 이 책이 출간되므로써 북한민속학의 전모가 처음으로 드러난다. 각 시기별 북한민속학의 사적전개, 연구자별 연구성과 등을 정리하는 가운데

41) 성병희·임재회편,『한국민속학의 과제와 방법』,정음사,1986

42) 최인학,『한국민속학연구』,인하대출판부,1989

1977년부터 1985년까지의 매해마다의 민속학동향을 정리하였다.

43) 농경·사냥·운반은 김광연,수산은 박순호,축산은 강면희가 집필

44) 한상복,「전국민속종합조사의 회고와 전망 - 생산기술분야」『한국문화인류학』5,1978

45) 근대사연구회편,『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한울,1987

물질문화연구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1950, 60년대 북한민속학계는 물질문화, 혹은 생산품습 연구가 주종을 이룬 탓에 이를 피하고서는 학사 서술 자체가 불가능한데서도 비롯된다. 황철산, 김일출, 전장식, 리종목, 정시경, 강석준, 선희창, 조대일 등에 의하여 일정한 연구가 축적되었다.⁴⁶⁾ 주장현의 북한민속학계에 관한 관심은 이후에 1998년의 북한물질민속연구사로 확장된다.⁴⁷⁾ 민속물질을 바라보는 북한민속학계의 시각을 사회주의체제의 내재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민속학편제상의 문제, 민속학현지조사상의 입장을 거론하였으며, 시기별 민속물질연구사를 검토하였다. 1970년대, 어떤 의미에서는 1990년대까지도 여전히 유의미한 북한학계의 물질민속연구성과가 공식적으로 거론됨으로써 남북한의 민속물질연구사는 공히 대등한 위치에서 연구사적 통합을 거칠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그러나 남쪽의 연구사검토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한국민속연구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생산품습에 대한 서술이 보이기 시작한다. 비록 ‘농업기술사’분야 정도에 머물고 수공업, 어업 분야 들은 제외되어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이전 시기보다 일보 전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배영동은 농업기술연구사 서술구분을 한국농경의 기원과 전파·지역성, 농업기술발달과 사회경제적 변동, 농업기술 관행의 의미와 문화변동, 농기구의 형태기능과 문화의 특성 등으로 설명하였으며 관련 문헌목록을 1차 정리하였다.⁴⁸⁾ 배영동은 1999년에는 ‘생활기구’ 연구방법론을 제출하였다.⁴⁹⁾ 생활기구의 개념, 요건과 영역, 생활기구 연구의의, 생활기구 연구의 방법과 전망 등 생활기구를 둘러싼 문화적 의미를 찾는 연구다. 물질문화, 또는 인공물의 한 영역인 생활기구를 민속학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연구로 볼수 있다.

물질민속을 분류하는 시도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 민속분류안이 깊게 연구되기 시작하며, 그 중에서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박물관학 측면에서 유형을 제시한 바 있는 「유형민속자료기능분류안」은 연구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⁵⁰⁾. 민속학계 및 공사립민속박물관 연구자들의 자문 및 협의를 거쳐 민속자료의 전산화작업을 위하여 마련된 분류안이다. 민속자료는 고고미술자료와는 성격상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고미술자료의 유물분류체계를 따르는 데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분류안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민속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존, 관련 박물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마련되었다.

연구사 및 연구방법론 검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연구인력 자체가 제한적이고, 연구성과 역시 제한적인 때문이다. 생산품습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가 거의 없으며, 혹은 간 있다하더라도 ‘검열’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민속학연구자의 대학내 편제가 여전히 어문학과 계열에 소속되어있는 상태에서 생산품

46) 주장현, 『북한민속학사』, 이론과 실천사, 1991, 89-114쪽

47) 주장현, 「북한의 민속물질 연구사 검토」『한국민속학보』7집, 1996

48) 최인학·최래옥·임재해편,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49) 배영동, 「생활기구를 통한 문화탐색의 의의와 과제」『한국민속학보』9집, 1999

50) 「유형민속자료기능분류안」『민속학연구』3호, 국립민속박물관, 1996

습이란 애초부터 결합되기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설혹 어문계열 등의 출신연구자가 생산풍습을 연구한다고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게 마련인 것이다.

1) 農書 註譯作業의 진척

농업생산풍습에 관한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두말할 것도 없이 農書다. 농서에 관한 관심은 사회경제사·농업사·농학사 따위를 전공으로 하는 역사학분야에서 일찍이 주목하였다. 현장조사를 위주로한 한국민속학에서는 농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민속학분야에서도 생산풍습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은 농서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齊民要術』·『農書』·『農桑輯要』 같은 중국 농서의 직수입, 혹은 번안식 농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종조에 이르러 農事直說 편찬이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한국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알맞는 適期適作의 농법이 폭넓게 인식되어가고 있었다. 『農事直說』·『四時纂要抄』·『攷事撮要』 같은 문헌들이 조선전기에 출간되었다면, 조선후기에는 『閑情錄』·『農家集成』·『穉經』·『山林經濟』·『農家要訣』·『農政書』·『林園經濟志』 등이 속속 출간되었다.

1970년대 이래로 농업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譯註本이 산출되기에 이르렀다. 번역 및 초역은 김영진에 의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蠶絲學古典研究』(1972), 『農家集成』(농촌진흥청, 1972), 등을 펴낸바 있는 김영진의 역주작업은 『農林水産古文獻備要』와 『朝鮮時代前期農書』에서 1차 정리된다. 『農林水産古文獻備要』는 232편의 농서를 총망라하여 간결한 해제를 붙인 것으로, 농학사·농업기술사·농업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종합농서와 특수농서, 蠶桑書, 畜産·獸醫, 수산, 삼림관계서를 망라하고 식품서, 농정관계서, 기타 참고서를 포괄하였다.⁵¹⁾ 『朝鮮時代前期農書』는 撮要新書·農事直說·衿陽雜錄·閑精錄·農家集成의 역주본이다. 전기농서는 대별하면 作物書·獸醫畜産書·養蠶書 등이다. 그중에서도 農政이나 농업기술의 골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농서는 식량작물 중심의 농서들이며, 이들 농서는 원리면에서 20세기 농업기술의 골격을 이미 조선전기에 완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전에 개별 농서에 대한 개별적인 역주가 나온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조선전기의 중요 농서를 묶음으로 출간한 예로서 최초일 것이다. 각각의 농서마다 비교적 자세한 해제를 붙이고 자료의 서지학적 고찰을 붙이고 있어 이본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⁵²⁾

민속학분야에서는 경기대박물관총서에서 농서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정도다. 권진숙은 『農事直說』을 『한국의 농경문화』에 해제를 붙여 수록하면서 다음같이 말했다. “당시 농사에 이용되는 농기구들을 확인할수 있는데, 특히 본서에 散出하고있는 농기구들

51) 김영진역주, 『농림수산고문헌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52) 김영진역주, 『朝鮮時代前期農書』, 농촌경제연구원, 1984

은 인류학이나 민속학의 분야에서 물질문화를 연구하는 대상으로서도 중요한 자료가 아닐수 없다”.⁵³⁾민속학적 목적에서 역주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민속학분야에서 농서 자체에 관한 깊은 관심을 쏟지 못한 대신에 각 민속지를 통하여 농법에 관한 연구조사가 널리 이루어졌다. 비록 농법연구라는 이름을 달지 않았더라도 세시풍속 따위의 이름으로 適期適作의 농법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현지조사를 통하여 농기구, 종자 따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민속지적 연구는 현재로서는 그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을 뿐이며, 이를 문헌기록 등과 연계하려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속학현지조사의 결과물들이 기존 농서 및 여타 문헌기록 상에 존재하는 결과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의 변별성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우기 농서의 일반적인 서술로 인하여 지역을 무시하는 기록물을 현지조사결과물이 지적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같은 연구사적 전망은 여전히 앞으로의 ‘전망’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2) 鄉村社會史 연구동향과 村契의 생산조직

물질민속을 매개로한 역사학과 민속학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동안 역사학과 민속학의 직접적 만남은 ‘문헌실증주의’와 ‘현장구전주의’라는 어쩔 대립적인 요소로 인하여 쉽게 만나지지 않았다. 그러나 양자는 결코 대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역사학에서는 지나친 문헌주의, 게다가 중앙문화 중심의 사관으로 인하여 풍속사나 제도사, 생활사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민속학은 현장조사에 주력했을 뿐, 문헌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향촌단위의 민의 동향과 결부된 민속학이론화 작업에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민속학이 기본적으로 지방사에 관심을 지닐수 밖에 없는 현장성으로 인하여 양 학문체계는 필연적으로 조우할 수밖에 없는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역사학과 민속학이 만날수 있는 결정적인 고리인 한국역사민속학회의 출현이 현실화되었다. 일군의 조선후기 향촌사회사연구자들이 민속학과 결합하여 민의 하부단위의 삶에 기초한 연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 매개고리로서 생산풍습과 결부된 향도, 두레 따위의 村契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두레 따위는 사회사란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조직이며, 생산풍습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자체 생산조직이기 때문에 각자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또한 이들은 역사학으로서 보면 향촌사회의 동향을 읽어낼수 있다는 점에서, 민속학에서 본다면 마을공동체문화 안에서 촌계가 차지하는 각별한 위치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생산풍습 두레 연구가 가지는 사회사적 의미는 이처럼 폭넓은 것이다.

1954년 이병도는 고대 사회 南堂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우리 고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53) 권진숙, 「農事直說 解題」, 『한국의 농경문화』2집, 경기대출판국, 1987

집회기관을 촌집회소의 ㅁ을과 두레로 보면서 결사를 뜻하는 徒・接・契・社 등의 한자어가 모두 국어 ‘두레’의 譯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54)

1966년에 최재울과 박광순의 농민들의 생산현장에 자리잡은 모정연구를 내놓았다. 광범위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모정의 역사와 분포 실태, 기능을 분석하였다. 마을공동체 문화를 밝힌 점에서 생산풍습 연구에 일조하고 있다. 55)그 이후로 모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일개 단위지역의 민속지까지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56)

1980년대 들어서면서 두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다. 그 관심은 학문영역에서보다는 문화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논의였다. 이는 70년대 이래의 탈춤부흥운동에서 제기된 것이다. 57)그러나 두레의 실체는 파악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1984년 두레에 관한 본격적 논문이 신용하에 의해 제출되었다. 그는 두레의 기원과 변천, 두레의 조직, 두레의 공동노동 조직, 호미모듬과 호미씻이, 두레와 농악, 두레의 사회적 기능, 일제 강점기 두레의 변화를 서술하였다. 그의 연구는 일제하 일본인의 연구, 강정택・인정식의 연구 따위를 종합화한 것이다. 기존의 흩어졌던 문헌자료를 집대성한 셈이다. 일제시대 이래로 기존의 정설이었던 공동체잔재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8)후속연구에서 그는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의 ‘土地는 平均分作할 事’를 두레法으로 해석하였으며, 丁茶山の 井田制와 두레를 연결지었다. 그의 연구는 19세기 농민항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다. 59)그러나 현지 조사를 거친 연구가 아니므로 해서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985년 주강현의 연구는 두레연구에 관한 문헌과 현장자료에 기초한, 그동안의 논의를 총결하는 성격의 완결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지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기능을 마을굿과 두레굿으로 대별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와 마을굿・두레굿의 기본 성격, 대동굿의 물적 토대, 마을 공동체의 분화와 마을굿・두레굿의 이행 과정을 밝히고 있다. 후속 연구로 두레의 민중 조직적 성격이 조선후기에 변형성을 담보한다는 연구, 나아가서 북한민속학사를 개괄하는 가운데 북한의 황두에 관한 연

54) 李丙燾, 「古代南堂考 - 原始集會所와 南堂」 『서울대논문집』1집, 1954.

55) 崔在律, 「茅亭이 농촌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湖南文化研究』(6집), 전남대호남문화연구소, 1966.

朴光淳, 「茅亭의 사회경제적 기능의 推轉 科程」, 같은책.

56) 광주민속박물관, 『광주의 모정』, 1998

57) 70년대 탈춤운동의 대표자격의 하나인 蔡熙完은 연희집단을 사당패와 두레패로 구분지은 바 있다. (『假面劇의 民衆의 美意識研究를 위한 豫備的 考察』, 서울대대학원 미학과, 1977, p.25).

58) 愼鏞廈는 두레공동체(Duregemeinschaft)라는 독립된 학술용어를 주장하면서 작업공동체로 분류하였다. 지역적 연구조사의 불비는 당시 학계의 수준이기도 했다. 그 역시 해방이후 본격적인 연구논문이 한 편도 없으므로 빈약한 자료에 의거해서라도 논문을 쓸 수 밖에 없는 점을 밝히고 있다. (愼鏞廈, 「두레共同體와 農樂의 社會史」 『한국사회연구』2, 1984)

59) 愼鏞廈, 「甲午農民戰爭과 두레와 執綱所의 폐정개혁」,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7

구도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은 소멸된 두레에 관한 민속학적 현지 조사와 문헌 자료를 연결짓는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60)

1988년 이태진의 연구는 향도가 분화하면서 두레가 발생하였다는 설을 제기하였다. 공동노동 연구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북한학계의 성과를 다수 원용하여 이양법과 두레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61)

민속학분야의 두레 연구는 무엇보다 자료의 외연확장에 기여하였다. 두레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지조사자료의 확충은 모두 민속학분야의 조사 연구로 이루어졌다. 62)문화재관리국에서 발행한 일련의 자료들은 일부나마 공동노동 두레 및 품앗이 따위에 관심을 돌렸다. 63)민속연회사 측면에서 풍물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두레와의 관련성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풍물의 기원문제에서 두레의 역할, 두레풍장 그 자체의 '일과 놀이'로서의 관계가 주목된다. 길쌈두레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는 겨우 1편 정도만 확인된다. 64) 인류학의 한국민속학연구에서 農耕儀禮의 文化人類學的 고찰과 협동관행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65)민속학분야에서 농기구 연구도 주목된다. 66)

역사학 쪽의 연구는 사회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67)처음부터 두레에 관심을 두

60) 두레의 현지조사자료는 『한국의 두레』(국립민속박물관, 1994)에서 1차 총괄되었다. 현지조사 연구자료 중에서 10여개만 추리면 다음과 같음.

① 「두레공동노동조사보고서-경기·충청·전라·경상 남한지역을 중심으로」, 『노동과 곳』, 1988. ② 「두레공동노동조직과 농민문화 -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일대를 중심으로」, 『화성문화』6, 화성문화원, 1988. ③ 「1930-1950년대 화성지역 두레 공동노동 연구-화성군 두레공동노동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충청문화연구』(1), 한남대충청문화연구소, 1989. ④ 『農漁業生産과 生産組織』,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희대중앙박물관·화성군청, 1990. ⑤ 「생산풍습」, 『安養市史』, 안양시사편찬위원회, 1991 ⑥ 「生産風習」, 『大田市史』(민속편), 대전시사편찬위원회, 1992. ⑦ 「대전지역두레 공동노동연구-대전시 두레공동노동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충청문화』(3), 한남대충청문화연구소, 1992 ⑧ 「生産風習」, 『果川郷土史』, 과천문화원, 1993 ⑨ 「生産風習」, 『錦江誌』, 충남도청·한남대학교, 1993 ⑩ 「生産風習」, 『鷄龍山誌』, 충남도청, 1994 ⑪ 「生産風習」, 『坡州郡史』, 과주군지편찬위원회, 1995

61) 李泰鎭, 「17·8세기 香徒組織의 分化와 두레발생」, 『震檀學報』(67), 1988

, 「體泉 開心寺 石塔記의 분석 - 高麗 前期 香徒의 一例」, 『歷史學報』(53·54합집호), 1972

,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62) 『한국의 두레』, 국립민속박물관, 1994

63)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1969 - 농악·풍어제편, 1982)

64) 林在海, 「안동의 길쌈전통과 두레 공동체」, 『民俗學研究』1, 安東大學校民俗學會, 1989.

65)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1985, 영남대출판부

조경만, 「농업노동 형태의 생태경제적 맥락에 관한 일고찰-1940년 전후 추양리 두레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19, 1987

66) 金光彦, 『韓國農器具攷』,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배영동, 「호미에 關한 一 研究」, 영남대인류학과 석사논문, 1997

67) 연구사 자체에 관해서는, 이태진에 의해(앞논문) 공동노동에 대한 일제시대 및 기존의 남북한 학설에 대한 1차 점검이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전반에 대해서는 『韓國中世社會解體期의 諸問題』(上·下), 한울, 1987에서 1차 검토가 이루어졌다. 사회사란 측면에서는 이해준·김인걸에 의하여 『朝鮮時期 社會史研究法』(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에 총괄되었다(정진영, 「조선시기 촌락연구와 자료」, 같은책, pp.173-212).

었던 것은 아니었고 상층부 문화인 조선시대 鄉約 研究에서 출발하여 村契로 내려오는 순서를 밟았다. 68)대개 민의 생활 저변에 깔린 鄉村社會史 研究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왔다. 향도의 분화를 다루면서 민의 조직을 재론하는 연구, 촌락의 재편문제와 변동에 관한 연구도 두레연구와 직결된다. 69)조선후기 민의 저항을 다루면서 樵軍을 두레로 보거나 두레 자체의 動力을 주목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70)

사회학 분야는 일제시대 鈴木榮太郎을 위시한 사회학자들의 촌락사회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71)두레 자체에 대한 연구, 고지노동에 관한 연구, 계에 관한 연구 등이 두레연구와 연관된다. 72)

향촌사회사연구자들이 역사학과 민속학의 연계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그 귀결점으로 출간된 생활문서자료집은 민속생활사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옛문서의 민속학연구 자료화, 각 지역 자료관 및 민속관의 생활사관련 옛문서의 수집과 분류모델제시, 향촌사회사 및 생활사연구자의 양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으며, 그 안에 생선평읍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담고있다. 73)같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88년에 출간된 운조루보고서도 일개 양반집의 소장자료를 통하여 역사를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또한 운조루에 소장된 많은 생선평읍관련 민속자료를 제시하고있다는 점에서 역사학과 민속학의 유기성을 보여주고 있다. 74)

촌계를 매개로한 역사학과 민속학의 만남은 두레나 민간신앙 같은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00년대 들어갈수록 생활사에 대한 역사학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본격화되었으며, 세계사적으로도 문화사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생활사에 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사연구를 자기 전공으로 하는 민속학의 역할이 기대되며, 특히 민의 생활풍습에서 가장 밀접

68) 金龍德, 「洞契考」,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7

, 「朝鮮時代の 鄉村自治-鄉廳과 村契」, 『國史館論叢』3, 국사편찬위, 1989

, 「村會와 鄉會」, 『歷史民俗學』2, 한국역사민속학회, 1992

鄉村社會研究會, 『朝鮮後期 鄉約研究』, 민음사, 1990

朴京夏, 『朝鮮後期 鄉約研究』, 중앙대박사논문, 1993

69) 李海浚, 「朝鮮時代 香徒와 村契類 村落組織」, 『역사민속학』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金俊亨,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 석사논문, 1982

鄭勝謨, 「朝鮮時代 鄉村社會의 變動과 農民組織」, 『역사민속학』1, 한국역사민속학회, 1991

鄭震英, 「朝鮮後期 在地士族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 영남대박사논문, 1993

70) 金仁杰, 「朝鮮後期 村落組織의 변모와 1862년 農民抗爭의 조직기반」, 『震檀學報』67, 진단학회, 1989

高錫珪, 『19세기 鄉村支配勢力의 變動과 農民抗爭의 樣相』,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1

71) 한국학연구 50년을 검토하면서 한국사회사학분야에 대한 총괄점검이 이루어졌다. (『한국학연구 50년 점검』, 『韓國學報』80집, 1995년 가을)

72) 崔在錫, 「契集團 연구의 성과와 과제」,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 1969

金弼東, 『韓國社會組織史研究 - 契組織의 組織的 特性과 歷史的 變動』, 일조각, 1992

金炅一, 「朝鮮末에서 日帝下의 농촌社會의 洞契에 관한 연구」, 『韓國學報』35, 일지사, 1984

윤수중,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0

73)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서와 옛문서』, 1991

74) 국립민속박물관·전라남도, 『구례운조루』, 1988

한 분야인 의식주와 생업분야의 영역은 많은 주목을 요한다.

2) 농법과 농기구

농법에 관한 연구도 역사학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었다. 1971년에 간행된 金容燮의 연구는 60년대 이래의 한국사회경제사의 연구를 대표하며 이양법의 확산, 경영형부농 등에 관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용섭의 일련의 연구는 농법과 농서, 노동과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⁷⁵⁾

김용섭 등 역사학분야의 연구가 주로 농서를 비롯한 문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민속학분야에서는 민의 생활현장에 기초하여 단위 생활사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지점은 20세기 말까지도 문헌 중심의 역사학과 쉽게 만나지 못하는 측면에 있다. 그러나 민의 구체적인 실생활 단위에서 폭넓은 구전자료와 유물 등을 활용하는 연구성과는 민중생활사의 전개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농법·농기구 등의 민속학적 연구는 農學과도 무관할수 없다. 자연과학적인 농법이 아닌 농업사에 기초한 연구는 이춘녕에 의하여 일정 정도 진척되었다. 『조선농업기술소사』(1950) 『한국농업기술사』(1964)를 펴낸 바 있는 이춘녕은 '한국농학사'를 연대기순으로 작성하였다.⁷⁶⁾ 선사시대부터 고려시기, 조선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 개항전후, 현대농학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순으로 농학을 서술하였다. '농업은 농사기술에 속하고, 농학은 학술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정의하면서, 주로 농사에 기초하여 농학사를 서술하였다. 농기구와 농법에 관한 대목이 많이 서술되었다. 그러한 작업의 부산물로 제출된 『한국의 물레방아』는 문고판으로 발간된 교양서로서 물레방아의 기원 및 변천, 수차의 역사, 전국 물레방아 실태조사, 현존 물레방아의 개선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실제 이용현황을 현장조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민속학적 연구성으로 인정할수 있다. 이후에 물레방아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들이 결합되므로서 현장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상의 연구는 민속학에 도움은 줄지언정 민속학의 독립과학으로서의 자기발전에는 여전히 '본질적'이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인류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한 김광언에 의하여 한국의 농기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상 농기구연구는 구한말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1-3』에서 각 도별로 농업현황을 분석하면서 농기구 도해를 넣은 것이 최초일 것이다. 1924년에 『조선의 재래농기구』가 출간되었으며⁷⁷⁾, 60여년 뒤인 1969년에 『한국의 농기구』가 한국인의 손으로 발표된 것이다.⁷⁸⁾ 김광언은 이어서 1986년에 완결편적인 성

75) ① 金容燮, 『朝鮮後期 農業史研究』(1·2), 一潮閣, 1970. 『增補 朝鮮後期農業史研究』(지식산업사, 1995)로 增補되었다.

② ,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1988. 이 책의 기초가 된 다음의 논문들도 두레와 황두를 연구하는데 간접적으로 일조한다.

「千一錄의 農業論」, 『東方學志』50, 1986

「農政要志의 水稻 乾播技術」,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論叢』, 1988

76) 이춘녕, 『한국농학사』, 민음사, 1989

77)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조선의 재래농구』, 1924

격을 지닌 『한국농기구고』를 발표한다. 1969년에 낸 「한국의 농기구」는 당시 각지에서 쓰던 재래 농구에 대한 현지조사보고서였다. 그 후속연구가 「박물관신문」(국립중앙박물관간행)에 연재된 것을 보강하여 『韓國農器具攷』를 펴낸 것이다⁷⁹⁾. ‘조선조의 농서와 문헌’에서는 농서와 類解題를 비롯하여 月令體의 노래나 풍속도 따위에 나타난 농기구, 중국농기구와 우리농기구의 관련 등을 밝혔다. ‘일정기의 문헌’에서는 일본인들의 조사 보고서나 저술, 그리고 논문들에 한국농기구가 소개된 양상을 밝혔다. ‘광복 후의 문헌’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현금에 이른 연구를 밝혔다. 『農器具名表』는 조선조와 일정기, 그리고 광복후까지의 문헌상의 농기구 명칭을 다루어 일종의 사전구실을 하게 하였다. 자료상의 도움에서 일본학계의 많은 도움을 받아쓴 것으로 저자 서문에 밝히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북한민속학계의 연구성과에 대한 각주나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민속학자 정시경 등의 도해를 부록편에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민속학교류가 이런 식으로나마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할수도 있다.

농구에 관하여 국문학연구자들은 주로 어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둔 정도다. 가령 최범훈은 경기도 용인군을 답사하여 농기구 어휘를 채집 보고하고 있다.⁸⁰⁾ 김광언은 기왕의 농기구 연구를 확장시켜서 한·중·일 세나라의 농기구가 상징하는 바를 각 도구별로 연구한 성과를 내놓았다. 총 74개의 도구를 나열하고 각각의 도구마다 얹힌 상징성을 주목하였다.⁸¹⁾ 재미있는 것은 김광언의 연구가 실린 상징체계연구서가 첫권은 공간민속·정신민속, 두째권은 시간민속·물질민속, 세째권은 비교민속이란 체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권 물질문화편에서는 생활용구(김광언)와 의례용구·놀이감(임재해), 무구(황루시), 장신구(조우현)에 나타난 한국인의 상상체계를 다룸으로써 용구연구에서 상징성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 상징성연구에서 언어학적 관점이 두루 원용되었음을 주목한다.

1989년에 남한에서 발간된 북한의 재래농법과 농기구 연구서는 북한민속학연구성과가 소개된다는 측면 말고도, 그 자체 중요한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북한의 1950년대, 60년대 주요 성과가 80년대 말에 대중에게 본격 소개된 셈이다.⁸²⁾ 당시로서는 민속학분야 생산품습연구성과의 독보성을 인정할만한 수준을 보여주었

78)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79) 김광언, 『한국농기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80) 최범훈, 『韓國農器具 語彙攷』 『한국의 농경문화』 2집, 경기대출판국, 1987

81) 최인학 외, 『기층문화를 통해본 한국인의 상징세계』(하), 민속원, 1998

82) 주장현 엮음, 『북한의 민속학 - 재래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 1989. 수록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홍희유, 「15세기 조선 농업기술에 대한 고찰」

황철산, 「과거 우리나라 경작관습의 몇가지에 대하여」

황철산, 「함경북도의 과거 농업생산에 관한 고찰」

홍희유, 「15세기 이후의 조선 농구에 대하여」

정시경, 「우리나라 재래농기구의 유형과 그 분포」

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생산품습연구자가 드문 실정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적기적작에 입각한 생산품습을 연구하는 경향이 일각에서나마 나타났다. 제주도의 김영돈은 연자매 등에 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⁸³⁾. 고광민은 제주도 민구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는 동시에⁸⁴⁾, 제주시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영평동의 생업기술을 표본으로 하여 농법에 관한 연구를 제출하였다. 쉬돌림, 밭갈이기술 등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따비와 잡초일람표, 토양도 등을 제시하였다. 제주도 쟁기를 중심으로 밭갈이 형태도 분석하였다. 제주도 경작토의 물리적 조건과 농경구 형태와의 상관관계를 다루었으며, 이러한 환경조건에 따른 제주도 쟁기의 형태를 도해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잡곡 경작기술과 밭갈이법, 밭갈이의 실재를 쟁기달린 우경소의 도해로서 출실하게 보고하였다. ⁸⁵⁾ 이 같은 연구는 앞의 김광언의 총괄적인 연구와는 다르게, 1개 지역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접근을 통하여 생산품습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그의 연구는 농업에서 끝나지 않고 어업으로까지 이어진다. 물론 그의 연구가 지극히 미세하고 세세한 연구방식을 취하고 있음은 일본민속학 ‘民具’연구의 경향성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농업학 분야에서도 농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기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쇠퇴하는 농구를 연구하고 이를 농업학 측면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일찌기 이춘녕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고, 박호석 등에 의하여 이어지고 있다. ⁸⁶⁾이같은 연구는 1950, 60년대 북한민속학계에서 인멸해가는 농기구를 연구함으로써 현대농기구생산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던 측면과 연계되는 지점이 있다.

민속학분야 보다는 주로 고고학과 지리학, 인류학분야 등에서 많이 논쟁이 이루어진 稻作의 기원에 관한 논쟁은 1960년대 이래로 여러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종족기원문제, 문화전파경로 등과도 결부되어있다. 대략 중국의 화북에서 한반도로, 또는 강남에서 직접 해로를 거쳐 한반도로, 아니면 아예 동남아시아의 도작문명이 남방에서 전래되었다는 설도 나왔다. 이들 제 견해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나 문화의 이동에 관하여 깊게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의의가 깊다. 고고학분야에서는 1960년대 김원룡의 연구를 위시하여⁸⁷⁾ 지금도 농경문화의 실체를 밝히고 정확한 연대를 규명함으로써 당대 생활상을 복원하려는 고고민속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정시경, 「기경용 재래농기구의 유형과 그 분포」

정시경, 「호미의 유형과 그 분포」

정시경, 「연백지방의 축력 농기구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

강석준, 「쌍명에 가대기」

민속학연구실, 「독로강의 어로민속」

83) 김영돈, 「제주의 연자매」, 『문화재』8, 문화재관리국, 1974

84) 고광민, 「제주도 민具」, 『탐라문화』3·5, 1984-86

85) 고광민, 「제주도 쟁기의 형태와 밭갈이 방법」, 『한국의 농경문화』2집, 경기대출판국, 1987

86) 박호석, 「한국쟁기의 발달과 역학적 특성」, 『민족문화』6,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1993

87) 김원룡, 「韓國栽稻 기원에 대한 一考察」『진단학보』25·26·27, 1964

고 있다. 88)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과 더불어 생태민속적 측면에서 자연생태와 기술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한다. 조경만이 생태인류학적인 측면에서 기술과 자연과 생태의 관계를 논하였으며, 전경수는 뚝배지 축산을 통하여 농업기술(축산)의 생태적 의의를 논하였다. 생태인류학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민속학 쪽의 대응은 더디다. 민속학에서는 주로 변천하는 현실 속에서 농업의 기술적 관점이 어떻게 대응하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해왔는가를 검색하는 논문이 주종을 이룬다. 가령 장철수는 목화의 전래를 다루면서, 이것이 야기한 농업기술체계, 직조도구, 의생활문화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배영동이 수도작농업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것 따위도 농업기술의 현재적 변환의 의미를 추적한 논문이다. 89)

1990년대 연구사 특징은 농업생산에 관한 연구대중화가 비로소 이루어진 시기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박물관, 전남의 영산강농업박물관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각종 전시회나 도록 등을 통하여 학생들까지 포괄하는 농업에 관한 대중교양화가 진척되고 있다. 농구에 관한 최초의 대중교양적인 안내개설서도 등장하였다. 사진을 곁들여서 대중들로 하여금 쉽게 농구를 이해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진 셈이다. 90) 전통적인 농업기반이 대거 사라지므로써 오히려 귀한 물건이나 풍습이 되어버린 농업생산문화는 역설적으로 그 소중함과 희소성으로 인하여 필연성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더우기 컴퓨터를 통한 동영상 등의 기록을 통하여 생산풍습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4) 농경의례와 생산풍습

생산의례는 미시적 접근으로 본다면 생산풍습연구의 주종은 아니다. 그러나 의례라는 것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총체적 과정으로 인식된다고 할때, 생산의례적 측면은 당연히 생산풍습에 포함된다.

첫째, 생산의례에 관한 관심은 국문학출신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민간신앙연구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연구사적 전통을 차지하고 있다. 朝鮮 後期 村契의 양대 기능이 村祭와 두레에 있다고 볼 때, 91) 민간신앙은 단순한 신앙 이상의 의미를 지

88) 최무장, 「한·중선사시대의 농구」, 『백산학보』24, 백산학회, 1978

길경택, 「한국선사시대의 농경과 농구의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5

89) 조경만, 「농업에 내재된 자연·인간관계의 고찰」 『역사민속학』2, 이론과 실천, 1992

조경만, 「농업노동형태의 생태경제적 맥락에 관한 일고찰」 『한국문화인류학』19, 1987

장철수, 「목화전래에 따른 민속문화의 변화에 대한 시론」 『안동대』9, 1987

배영동, 「기술과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따른 수도재배관행의 변화」 『충청문화연구』1, 한남대충청문화연구소, 1989

90) 박대순, 『농기구』, 대원사, 1990

91) 金龍德, 「朝鮮後期の 地方自治」 『新韓國史의 探究』, 범우사, 1992, pp.145-8

난다. 신년제가 끝난 다음에 행하는 마을회의는 곧바로 촌제의 신년회의와 일치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는 물론 국문학, 혹은 민간신앙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설화, 신앙 등에 관심을 표명한 국문학연구자들이 주종을 이룬 민속학연구분야에서 생산풍습을 접근할 때 의례에 대한 관심부터 드러났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일찌기 일제시대 손진태의 누석단과 소도·장승에 관한 관심으로 부터 아끼바의 촌제에 관한 연구, 조선총독부총서로 발간된 무라야마의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조지훈의 연구를 비롯하여 김태곤·장주근·임동권·이두현·강용권·이종철·이은창·박계홍·현용준·최길성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다. 마을굿을 지내는 목적의 하나가 풍농·풍어를 비는 것이기에 민간신앙연구에서 자연스럽게 생산의례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생산풍습이란 직접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민간신앙을 접근해들어가는 연구는 의외로 없는 것도 특징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집안신앙을 매개로 생산의례와 결부지어 서술하기도 하였다. 일본인들이 주로 이같은 연구접근을 많이 하였으며, 사회경제사 김삼수가 『한국사회경제사』에서 생산과 곡령신앙을 연계짓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남근우 같은 이는 곡령과 씨를 연계지었다. 92)

둘째, 농경세시에 관한 연구방식으로 의례연구가 진척되었다. 한달에 2번씩 1년에 24 절후를 택하여 농사절기에 따른 세시절기를 많이 연구하였다. 각각의 절기를 따지다보면 자연스럽게 농사절기에 결부된 세시풍속이 등장하며 세시 및 연관놀이가 연구되었다. 이같은 연구경향도 보편적인 형태의 하나로 자라잡았다.

가령 김택규는 농경세시에 관한 기왕의 연구를 묶어서 ‘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이란 부제로 보고하였다. 93) 自序 첫글에서 ‘이 책은 한국의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논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농경의례를 모태로 하는 한국의 세시를 문화인류학적인 시점에서 분석한 논고’라고 계속 문화인류학적 성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시의 기본성격을 밝히고 나서 축원의 세시, 생장의 세시, 수확의 세시, 세시와 협동관행 등으로 기술하였다. 추석권과 단오권으로 문화권역구분을 시도하였다. 문헌과 현장조사, 사지자료 등을 모두 활용한 농경의례에 관한 본격적인 업적이다. 94)

이두현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주목한 탈춤에 관한 연구에서 놀이의 모의투쟁이 지니는 생산적인 의미를 강조한 대목이 많았다. 특히 조동일은 탈춤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탈춤이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거행하는 풍농굿에서 기원한 농촌탈춤에 근거를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95) 이같이 민속놀이 및 세시 등을 연구하는 방편으로서 생산의례를 주목한 연구는 매우 많다.

1980년대의 시대적 화두가 ‘일과 놀이’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생산의례에 관한 연구도 선보였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세계관’이란 부제를 달고 나온 『노동과 굿』에는

92) 남근우, 「穀靈의 제장과 씨의 계승의례」 『한국민속학』 22집, 민속학회, 1989

93)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출판부, 1985

94)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95)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흥성사, 1979

『두레공동노동의 사적 검토와 생산문화』같은 연구물이 실려 있어 생산풍습연구에 일조하였다. 96)

3. 구체적인 조사항목의 몇가지 사례

이하 서술은 실제 현지조사에 임했을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조사항목들이다. 본 워크숍의 기본 취지가 해당 대상에 대한 적합한 자료를 얻을수 있는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나에 있으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세목은 현장의 사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변모할 수 있으며, 제보자들의 수준(기억력 경험의 정도 기술력의 수준 등)에 따라 조사 항목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수공업분야라거나 의식주연관분야는 생략하였다. 물론 이들 항목들은 충남지역 현지조사에서 검증된 항목들이며 대개 충남의 경우에 적합한 내용들이다.

▷ 조사대상 1. 조사지역의 개관

물질민속을 연구하기 위한 지역적 토대를 먼저 개괄적이거나 조사해야한다. 민속학 분야의 어떤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항목들이지만 특히 다음의 사항들은 물질민속연구에서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 (1) 인근마을구성
- (2) 마을의 호수 / 성씨분포
- (3) 마을명칭의 입촌유래와 그 변화과정
- (4) 마을위치선정의 이유와 마을배치:인근의 산 및 내등
- (5) 마을의 신분구성
- (6) 도로개설시기 / 전기시설 / 교통시설
- (7) 주요공공시설/ 초등학교(통학거리)
- (8) 토지소유관계 : 조선후기로부터 해방이후 까지 소작. 자작점소작. 자작.
- (9) 현재 농지소유관계
- (10) 해방전지주(이름, 거주지)
- (11) 호당경지면적 : 해방전 소작면적 / 현재 경리면적
- (12) 토질/ 논과 밭비율
- (13) 주요 생산물: 주업 / 부업
- (14) 생산물 유통 체계 / 5일장과 상설장, 직판로 및 농협관계 등
- (15) 작물재배 변천사

96) 이보형·주강현외, 『노동과 곳』, 학민사, 1989

(16) 마을경관 및 지리적 이해

▷ 조사대상 2. 농업도구

농기구의 일반적 분류법에 의거하여 가는 도구로부터 저장·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가는 도구

- * 가래 : 종류와 용도차이 / 형태와 명칭 / 가래질종류와 시기, 작업량 / 가래질소리 / 변화과정
- * 괭이 : 종류와 용도차이 / 형태와 명칭 / 변화과정
- * 극쟁이 : 사용시기와 대상 / 작업량, 작업방법 / 세부명칭 / 제작법 및 재료 / 쟁기와의 차이
- * 쟁기 : 최초 도입시기 / 사용시기와 대상 / 제작법 및 재료 / 작업량, 작업방법 / 명에
- * 소의 활용 : 소보유현황(해방전 / 해방이후 현재) / 축력확보방안(송아지확보방법 / 축력과 인력비율 / 밭가는 방법 / 논가는 방법
- * 기타, 가는도구 및 현대화농구와의 관계

(2) 삶는 도구

- * 고무래 : 종류와 용도차이 / 형태와 발수 / 세부명칭 / 사용시기와 대상
- * 쇠스랑 : 종류와 용도차이 / 사용시기와 대상
- * 나래 : 용도 / 작업방법
- * 씨래 : 종류 / 제작법 및 재료 / 사용시기와 대상, 작업량 / 축력이용방법 / 발수와 세부명칭 / 변화과정
- * 번지 : 사용시기와 대상, 작업량 / 제작법 및 재료 / 변화과정
- * 다래끼 : 종류 / 제작방법 / 재료
- * 기타, 삶는도구 및 현대화농구와의 관계/

(3) 매는 도구 및 거름

- * 소매구시
- * 장군 및 뚝지게
- * 제일 많이 나는 풀
- * 호미 : 종류 / 사용시기와 대상, 작업량 / 변화과정
- * 제초기의 종류와 도입년대

(4) 물대는 도구

- * 마을 물사정 및 주요수원
- * 용두레 : 명칭과 용도 / 제작 / 작업시기 / 작업량, 작업방법
- * 고리두레 : 명칭과 용도 / 제작 / 작업시기 / 작업량, 작업방법

- * 무자위
- * 현재의 물대는 도구
- (5) 거두고 터는 도구
- * 낫
- * 도리깨
- * 피상
 - 홀태
 - 호룽기
 - 탈곡기
- (6) 말리고 고르는 도구
- * 명석 : 제조법 및 시기
- * 도래방석
- * 키
- * 풍구
- * 채와 찻다리
- * 녀가래
- * 기타 도구 및 현대화농구
- (7) 알곡 및 가루내는 도구(맷돌.연자매.디딜방아)
- * 맷돌
- * 절구
- * 디딜방아 : 마을소유대수 / 사용시기 및 대상, 방법 / 사용시지불액수 / 1일작업량 / 품앗이관계 / 소멸시기 / 세부작동원리
- * 연자매 : 마을소유대수 / 사용시기 및 대상, 방법 / 사용시지불액 / 1일작업량 / 품앗이관계 / 축력관계 / 돌 보수하는 방법 / 소멸시기 / 세부작동원리
- * 물레방아 : 마을소유대수 / 소유자 / 수원 / 사용시기 및 대상, 방법 / 지불액수 / 1일작업량 / 소멸시기 / 세부작동원리
- (8) 운반 도구
- * 길마(발채)
- * 달구지
- * 지게
- * 삼태기
- * 망태
- * 기타 및 현재의 운반도구
- (9) 갈무리 도구
- * 둥그미
- * 벅섬

* 가마니

* 기타도구

(10) 축산 도구

* 소구유 및 굶쟁이

* 돼지구유

* 작두

(11) 농산제조 도구

* 바디 : 종류 및 용도 / 작업시기 / 작업량 / 소멸시기 /

* 베틀

(12) 기타 도구

* 호구

* 갈퀴

* 돌고드레

* 메

* 신틀

* 국수틀

(13) 대장간 문제 : 인근대장간현황 / 운영자 / 운영방법 및 규모 / 주요설비 / 주요
생산품 및 작업내용 / 소멸시기 및 시장구입문제, 이유 / 기타, 인근 철 수급(철광
등)

(14) 기계화 문제 : 주요 기계화도구명과 기능 / 도입방법 및 부채관계

▷ 조사대상 3. 노동방식

(1) 두레 97)

① 조직체계 : 마을에서 두레에 참가하는 범위와 강제성 여부, 두레성원의 신분(지주·자작·자소작·소작·머슴·품팔이), 두레 가입식의 시기와 절차, 마을 내 두레의 숫자, 두레조직의 인원수, 두레의 역원과 구체적 역할, 역원 선출의 절차와 자격, 두레가 조직되는 시기와 장소, 두레 관련문서(進貫冊 등).

② 두레 공동노동 : 김매기의 구분, 초벌·두벌·세벌·만두레의 시기와 방식(호미매기와 흙치기의 변별성), 지력의 경질여부, 논외 종류와 명칭, 경작하는 논외 범위와 타동까지의 작업장 거리, 두레 논일의 순서 결정, 두레 논일의 분량(1일 1인당 총 경지면적), 두레일 시작과 종료시간(1일 총 노동시간), 호미의 종류와 형태, 질호미 감는 방식, 대장간의 위치와 이용관행, 종고 및 신호방법, 두레일의 규율 및 제재방법, 일터에서 지주의 입장과 역원의 역할, 악기의 편성, 풍물패의 인원과 역할분담, 풍물패의 복식과 여타 준비물, 악기보관장소, 논에서의 작업(농기처리, 작업이동, 작업귀환시), 논매기노래

97) 주강현, 『한국의 두레』 1, 2, 집문당, 1996-7

의 형식 및 가사, 선소리꾼과 상쇠, 논매기와 모내기소리 관계, 논매기 방식, 참의 종류와 시간, 참의 내용물과 휴식방법, 참의 준비과정 등

③ 의례와 놀이 : 농기의 종류와 명칭, 농기 이동방식, 농기 보관장소, 농기의 원형과 변천과정, 농기고사, 영기의 역사와 변천, 영기의 역할, 길군악 및 주요 가락의 특징, 일반 풍물굿과 두레풍장굿의 차이, 두레풍장굿과 당산굿의 관계, 백중절 및 칠석놀이의 공통점과 차이, 백중절 및 칠석놀이의 행사, 복날 행사, 유두연, 두레먹기의 종류(호미걸이·호미씻이·술뻘이 등), 두레먹기의 시기와 내용, 두레먹기의 자금준비, 두레먹기의 음식차림, 만두레, 합굿의 방식과 연대하는 마을, 두레싸움의 원인과 진행, 두레싸움의 대상 마을과 싸움의 의의, 현재 악기의 수효와 보관장소, 현재 풍물을 쓰는 시기와 대상 등

④ 회의 : 결산모임의 시기 및 대상, 결산방법, 두레 일값의 처리문제, 지주와의 관계, 두레논일을 받아들이는 일반적 태도, 두레 공공자금의 쓰임새, 결산모임에서의 부대행사, 두레먹는 날과 두레회의의 관계, 마을회의와 두레회의 관계, 관련문서 등

⑤ 변천 : 두레의 최종 소멸시기, 두레가 소멸해 가는 과정, 최후로 본 호미걸이, 두레 소멸원인, 제초제가 들어온 시기, 진흥회와의 관계, 근로보국대의 공동노동과 대비, 두레 소멸 이후의 농업경영방식, 두레소멸과 노동요, 두레소멸과 풍물굿 등

⑥ 연관 노동조직: 두레와 유사하나 다른 성격의 공동조직, 품앗이, 고지, 상두꾼과 향도, 일반적 계와 두레 관계, 마을에서 통용되는 공동협업의 명칭과 내용, 연관 노동조직과 두레관계, 연관 노동조직의 일과 놀이 등

(2) 고지

① 고지명칭(충남) : 세지도리, 자리품, 선품팔이, 마지기고지, 두락고지, 고지작

② 고지의 분포 : 지역 / 평야, 산간여부 / 고지를 하는 이유 / 마을당 고지대수 및 밀도

③ 고지조직 : 구성원수(최소, 최대) / 고지성원(남녀노소 및 연령층) / 고지체계(고지두목등) / 고지주인 / 고지결합범위 / 고지계층:소작농, 농업노동자 / 고지계약시기: 고지계약방법(문서, 구두)

④ 고지노동내용 : 작업종류:논농사.밭농사 / 모내기.김매기.벼베기.수확작업등 / 고지종류:단기 및 중장기 / 작업속도:1일노동량(마지기당 분량)

⑤ 임금 : 임금체계(마지기당) / 고지종류별 체계 / 식사제공 여부

⑥ 기타 : 임노동 종류 및 명칭 / 머슴:세경, 계층, 주요작업, 주거처, 임금

(3) 품앗이

① 품앗이조직: 규모 / 품의 조직대상 /주대상일감

② 품앗이의 사례지불 / 변화된 임금지불관행

③ 각 계절별 품앗이 작업의 실제(음양력) / 1월 ~ 12월

(4) 계 및 회의, 보 등

① 계

* 대동계 및 동계 : 계의 역사와 변천 / 계의 목적 / 가입인원 및 조직영역 / 계의 조직체계

* 회의명칭 및 시기, 안건,

* 자산 및 수입방법, 동중답 존재, 결산방법

* 계회시의 놀이 및 연회

* 문서여부

② 일반계

* 주조직 지역과 범위

* 공공사업(수리계) : - 상호부조(상포계, 술계, 독자계, 쌀계, 학혼계, 위친계 등) - 산업생산(송계) - 금융식리(돈계, 마을금고) - 친목오락(여행계, 동갑계, 친목계, 농악계 등) - 부조기 등의 문서 존재여부

③ 마을회의

* 명칭 및 시기, 회수, 장소 / 회의주요내용 / 회의자금 / 회의시놀이

④ 보

* 저수지 및 보의 위치, 종류, 명칭

* 자연적 지형구조

* 저수지축성년대와 방법

* 보의운영

* 수리조합 및 전래보관행

* 수리계 여부

* 보조직의 구성 : 조직:임원.선출방식 / 물리자수.물리면적.물리자분포.경지정리후신규가입면적(두락).분수금 / 보총회:회의 내용.시기 /

* 공동부역 : 부역의 일과 운영

* 보의 행사력(월별) / 1월 - 12월

* 참고자료 (보관계 지도명기)

(5) 길쌈두레

① 제보자 : 시집온 지역 및 시기 / 년경< 살때>

② 자연환경 : 삼이 잘 자라는 토양문제(삼밭) 및 기후문제

③ 경작 : 삼농사경작토지 및 평수, 소출량 / 두레조직여부:삼농사의 경지를 공동으로 관리 : 농사지어 분배하는 과정 / 삼씨확보 및 보관 / 파종 / 시기별 생장순서 / 거름주기 등 가꾸기 / 수확, 삼베기의 방법 / 삼의 품질구분 / 수확된 삼의 분배문제 / 수확된 삼의 처리과정:삼단말리기, 피마건조

- ④ 삼무지관행 : 삼굿하는 과정 및 방법 : 불지피기, 물뿌리기 등 / 나무 준비 / 삼굿
협업양태 / 삼굿놀이 / 삼굿시의 금기 / 개량삼굿과의 차이
- ⑤ 삼삼기와 길쌈 : 삼삼기공정 / 삼삼기협업과정 / 길쌈과정 / 길쌈놀이
- ⑥ 길쌈과베짜기 : 삼익히기/ 삼벗기기 / 훑기 / 찌기 / 삼기 / 날기 / 매기 / 짜기 /
베짜기공정 / 베틀시기 / 베틀노래 / 베틀관계설화
- ⑦ 도구 : 베틀명칭(베틀도해)/개량베틀의 기능과 형태
- ⑧ 베 : 베의 종류와 가격, 공정차이 / 소출량:1일생산량 / 1년생산량 / 마을당 소출 /
마을 및 개인소득(현금개념) / 내다 파는 시장 및 방법 / 삼베의 소멸시기 및 약화시기
와 이유 / 앞으로의 전망 /

▷ 조사대상 4. 농사력 및 세시, 농사관행

(1) 0000년경 시점과 오늘의 시점 비교

月(陰)		농사력	세시풍속	농사력	세시풍속
정월	입춘				
	우수				
2월	경칩				
	춘분				
3월	청명				
	곡우				
4월	입하				
	소만				
5월	망종				
	하지				
6월	소서				
	대서				
7월	입추				
	처서				
8월	백로				
	추분				
9월	한로				
	상강				
10월	입동				
	소설				
11월	대설				
	동지				
12월	소한				
	대한				

▷ 조사대상 5. 별첨: 어촌의 경우

(1) 어촌계 및 어업도구

- * 어촌계 역사
- * 지역범주:양식장, 계원, 마을구성등
- * 어촌계조직
- * 회의
- * 어촌계 자산
- * 주 생산물
- * 양식업 관계
- * 공동어장 협업관행
- * 공공 시설 및 자산
- * 인근 어항여부
- * 판로 문제 및 생활권 문제
- * 어로도구 : 그물의 종류, 변천, 용도, 세부명칭, 사용방법 등
- * 배의 종류, 용도, 변천 등
- * 양식 어구

(2) 생태환경과 어업

- * 바다지명
- * 간척지
- * 해류
- * 어족
- * 생태변화에 따른 어업운영의 변화
- * 물때
- * 바람

(3) 어업력 및 세시, 어로관행

- * 어업력과 어로활동 : 각 달마다의 어로(김, 굴, 바지락, 쭈꾸미, 안강망, 유자망, 삼중망, 덩당, 삼각망, 통발, 주목망, 고대구리)
- * 1945년경 시점과 1997년 오늘의 시점.
- * 월별(음력) 어업력과 세시풍속

(4) 어류

- * 충청해안의 어류(월별, 지역별)
- * 조기 /민어 /새우/강달어/ 갈치 / 꽃게/ 청어
- * 패류: 반지락, 동죽, 피조개, 전복 등

(5) 어로기술

- * 어로기술의 전승
- * 어업실태 및 전망 등에 관한 것(기타 제의와의 관계)
- * 조기잡이 관계(어살, 선단 어업 순회, 설화 등)
- * 양식 : 1종양식어업, 2종양식어업 / 굴, 바지락, 기타 패류, 김

* 소금제조

* 젓담그기

(6) 배

* 보유선박의 종류

* 보유선박 숫자(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 선박용도, 그 변천

* 전통한선

* 한선제작(배 명칭, 제작과정, 가격, 주문방식, 쇄퇴과정, 목수의 살아온 라이프스토리 등)

(7) 어로도구

1.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1.손으로 쥐어 잡는 것

1)해조류 채취

2)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조개채취용 갈퀴, 갯지렁이 잡이 등)

2.잠수에 의한 것

1)머구리

2)해녀

2.작인·상해 어구류

1)손도구류(굴집게, 바지락써레)

2)침두 투사도구류(작살, 갈퀴 등)

3.마취법

1)물리적 마취(타격도구, 폭약류)

2)화학적 마취

4.낚시도구류

1)낚시가 달리지 않은 것

2)끝은 낚시류

각종 낚시명칭, 각 부분 명칭

손낚시류(외줄낚시, 대낚시, 채낚시)

고정낚시(주낙)

유동낚시

끌낚시

3)걸낚시류

뱀장어서레

문어외줄낚시

5.함정도구류

1) 은신함정류

- 덤불함정류와 장어통류(고기갓:섬고기잡기, 뱀장어죽통)
 - 문어단지류
 - 2) 장벽함정류
 - 석방렴(돌살)
 - 개막이그물
 - 가두리그물류
 - 3) 기계적 함정류
 - 개폐식문어단지
 - 4) 바구니함정류
 - 통발
 - 삼각망류
 - 5) 함정망류
 - 죽방렴
 - 어진(어살)/해방 전, 해방 후 망어진
 - 망어진
 - 낙망류
- 6. 입구 일정형어구류
 - 1) 첻배그물(사들류, 족대류, 밀그물류, 끌그물류)
 - 2) 주목망류(개량식주목망, 재래식 주목망)
 - 3) 안강망류(개량식, 재래식)
 - 4) 해선망(중선망)
 - 5) 낭장망
- 7. 끌어망류
 - 1) 틀망그물류(피조개틀망)
 - 2) 저인망류(바닥끌이그물류)
- 8. 인기망류
 - 1) 지인망(후릿그물)
 - 2) 외끌이 기선저인망
- 9. 선망류
 - 1) 각종 선류
 - 2) 건착망
- 10. 수망류
 - 들망류
- 11. 덮치기어구류
 - 1) 가리
 - 2) 투망
- 12. 걸그물류(유자망)

<기본자료>

『經國大典』『京都雜志』『谿谷集』『高麗史』『課農小抄』『閨閤叢書』『衿陽雜錄』
『農家月令歌』『農家集成』『農事直說』『農政要志』『農圃問答』『大東野乘』
『東國歲時記』『眉巖日記』『礪溪隨錄』『補閑集』『鳳城文餘』『四時纂要抄』『石泉日記』
『歲時風謠』『松都誌』『承政院日記』『新增東國輿地勝覽』『雅言覺非』『與猶堂全書』
『燃藜室記述』『五州衍文長箋散稿』『慵齋叢話』『日省錄』『林園十六志』
『朝鮮王朝實錄』『增補文獻備考』『增補山林經濟』『芝峯類說』『千一錄』『青邱野談』
『擇里誌』『閑情錄』『畫永編』『訓蒙字會』『韓國土地農山調查報告書』『韓國水產誌』
『農林水產古文獻備要』(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朝鮮時代 前期農書』(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等等